

에이즈 관리를 위한 임상병리사 교육을 마치고

서은주 / 관악보건소 임상병리사

에이즈 항체 검사를 담당하게 된 지 2개월이 지났다. 보건증 발급과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는 일반 에이즈 항체 검사자도 많아 적지 않은 건수의 에이즈 항체 검사를 하고 있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이거나 어느 정도 갖고 있었으나, 감염자나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현 전세계적인 에이즈 현황, 우리나라 에이즈 현황, 앞으로의 추세 등에 대해서는 무지 내지는 무관심했음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단 하루의 교육이었으나 보건원 강당에 마련한 좌석이 모자라도록 많은 수의 병리사들이 교육에 참여했고, 대한에이즈협회측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성의가 크게 엿보였다. 부족하지만 성의껏 교육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에이즈 역학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이즈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에이즈의 전파경로는 주로 성접촉, 수혈, 수



"우리나라의 에이즈 관리현황과 예방노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안소영 보건복지부 방역과 계장



"에이즈 바이러스 및 실험실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신영오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실장

직감염인데 그 중 성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로 가장 많다. 홍보와 예방대책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으나,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위험성은 점점더 높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방대책과 홍보가 미약하고 대부분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하여 에이즈 감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학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이 여자가 남자에게 감염시키는 것의 8배나 되니, 이성간 성접촉이 감염의 주요 양상이 되는 아시아 지역 여성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한다. 에이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 여성들 스스로가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실험실 진단 및 임상 양상과 치료

에이즈의 병원체인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일종의 돌연변이가 심하고 항원성이 다양하며 체외에서는 가장 약한 바이러스로 56°C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하고 체외에서 3~4시간이 지나면 항원성이 소멸된다고 한다. HIV에 대한 항체는 감염후 3~8주 사이에 형성되며 늦어도 6개월이면 다 형성된다고 한다.

검사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1차적 선별검사로 ELISA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나 특이도가 낮아 확인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면에 Western Blot은 감도도 좋고 특이도가 높아 최종판정을 할 수 있으나 다량의 전수를 동시에 시험할 수 없고 고가의 시약과 장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ELISA로 1차 검사를 해서 두 번 다 양성 나오면 보건원에 최종결과를 의뢰하고 있다. 그 외에도 면역형광항체시험(IFA)이나 PA법 등이 있다.

HIV 감염자는 HIV의 항원성이 다양한 것과 같이 임상증상도 다양하다. 대체적인 임상증상을 보면 감염초기에는 급성감염증상이 오고 이후 무증상 기간이 8~10년 정도 가는데 이 시기에는 무증상이더라도 검사를 해보면 면역기능은 계속해서 떨어져가고 전염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무증상 시기를 지나면 발열, 오한, 설사, 체중감소, 불면 등의 증상이 오면서 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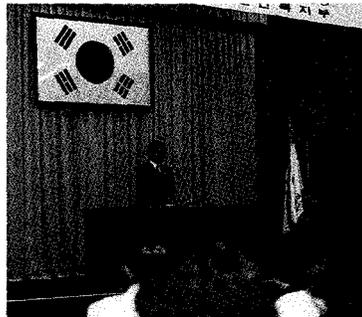
즈로 이행되는데 아구창, 칸디다질염, 골반내감염, 다양한 피부질환, 건망증, 기억력감퇴, 뇌염 등의 증상이 오고 감염 말기에는 각종 기회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주요 기회감염으로는 뉴모쯔스티스페렴, 식도 또는 폐의 칸디다증, 폐결핵, 전신성 결핵, 카포시육종 등이 있다.

현재 에이즈 치료제로는 ZDV, ddI, ddC 등이 있으나 완치 치료제는 아니며, 장기간 복용시 내성이 생기고 치료제로 인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의료인의 HIV 감염 예방 대책

다른 의료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지만 직업적으로 직접 에이즈 검사물을 채취하고 분리하여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병리사들은 오염된 혈액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질병관리센터(CDC)에서 의료종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Universal Precaution의 내용은 의료 종사자 본인을 위해서나 의료인으로부터 환자에게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꼭 지켜져야 한다. 실제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HIV를 전파한 예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충격적이다. 만약 부주의로 인해 HIV에 노출되었을 때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간 내 상처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그리고 노출된 날로부터 6주, 12주, 6개월에 걸쳐 항체추적검사를 하도록 하며, 또한 2~3개월 내



중합토의를 진행중인 최감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본회 부회장



에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의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검진을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 에이즈 관리 현황과 예방노력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HIV감염자는 478명으로 그 중 36명이 에이즈 환자로 발병하여 33명이 사망하였다. 성별, 연령별로는 20~40대가 427명으로 90%를 차지하고 있고, 총감염자 중 남자가 420명, 여자가 58명이나 남편에 의한 여성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감염요인별로 보면 이성간의 성접촉을 통한 전파가 422명이고, 동성연애에 의한 감염자는 92명, 수혈에 의한 전파가 21명, 혈액제제에 의한 전파가 17명에 달한다.

정부는 에이즈 관리를 위해 크게 예방홍보사업, 감염자 발견 사업, 감염자 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에이즈 감염 여부 검사는 항체검사법을 사용하고 있

다. 일단 HIV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항체가 생성되기까지는 3~8주의 시간이 걸리므로, 만약 HIV 감염자가 항체가 미처 형성되기 전에 에이즈 검사를 하면 음성판정이 나오므로 이런 사람이 헌혈을 해서 누군가에게 수혈을 한다면 HIV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100%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항원검사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HIV 감염자나 위험계층인 동성연애자나 마약 사용자들이 헌혈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홍보 계도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나 검역소에서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일반인,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도 무료익명 검사를 받도록 홍보, 유도하고 있다.

85년 이후 정부 주도 아래 에이즈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와 감염자 발견 및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국민예방홍보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민간단체나 언론매체, 보건관련단체,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루 동안의 에이즈 교육을 접하면서 에이즈의 실상과 현황을 자세히 알고 나니 에이즈란 불치의 병이지만 전과경로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으므로 예방만 잘하면 퇴치시킬 수도 있는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염자 발견이나 관리도 중요하지

만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은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키고 홍보하여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이즈 퇴치의 지름길일 것이다.

또한 에이즈는 성분란자나 동성연애자, 도덕적 파탄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고 비판적이다 못해 경멸감마저 느끼고 있던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물론 몇몇 선의의 피해자는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성병이라는 것이 인류가 존재하면 서부터 있어온 질병이고 에이즈에 노출될 확률이 볼 때 500회의 성접촉당 1회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어쩌면 그들도 운이 나쁜 피해자들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과 분리되는 특별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보건소에 와서 익명이나 실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걸어서는 친절할 미소로 가장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사람처럼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그들이 에이즈에 대한 것을 문의했을 때 한사람이라도 에이즈를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성의껏 대해야겠다. 아울러 병리사로서 나 자신을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충실한 검사업무를 통한 감염자 발견이 에이즈예방에 일익을 담당하는 길일 것이다. A

